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⑥ 해인사 장경판전(海印寺 藏經版殿)



이 중 훈
포천시향
경기도문화재단 이사장

세계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建物

다. 이후 무인들 사이에 다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무신정권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정국의 불안정은 최충헌(崔忠獻)이 정권을 장악하며 해소되었다. 최충헌의 집권 이후 권력은 최씨가문에 세습되어 4대 62년간 최씨 무단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체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13세기 전반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 무신정권은 강화도(江華島)로 수도를 옮기며 40년간 몽고에 항전했으나 결국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무신정권도 무너졌다. 이후 고려의 국정은 원(몽고)의 간섭 아래 운영되었다. 70여 년간 원의 간섭 아래에서 고려사화는 많은 번영을 보았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목판인쇄를 하였는데, 목판인쇄는 동일한 인쇄물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었다. 각각을 한번 해놓으면 인쇄에 편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보관하였다가 다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는 불교나 유교의 각종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신라의 목판인쇄술을 계승·발전시켰다. 이것은 불경 등의 인쇄가 크게 성행하였고, 또한 귀족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서적을 수집·보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목판인

쇄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경이다. 대장경판은 당초 경상남도 남해에서 판각하여 강화도 대장경판장으로 옮기고 보관하였으나, 고려 말 왜구의 빈번한 침범으로 인해 14세기말에 현재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옮겨 보관 중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무렵 조선 초기에 건립된 후 한 번도 화재나 전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팔만대장경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장경판전의 건물 배치는 정면 15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한 구조이다. 장경판전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修多羅藏)이라 하며 동쪽을 법보전(法寶殿)이라 하며 동쪽과 서쪽에 작은 규모의 동·서사간판전(寺刊版殿)이 있다.

이 판전에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글자 수는 무려 5천2백만 자로 추정되는데 이를 글자 하나하나가 오자·탈자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현존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으로 세계적 인명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이다. 대장경판전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경·율·논 삼장장을 집대성하였기에 세계불교연구의 귀중



합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전

한 문헌으로, 이 대장경은 일본에서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을 만들 때 표준으로 삼았으며, 중국에도 역수입되고,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서구에도 전해져 세계불교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정치인의 언어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박 정 군
대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요즘 정치계는 대선 후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이렇다할 후보의 카드를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인 반면에 야당은 이미 국민들의 지지율이 1, 2위를 차지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후보를 확보해 놓았다는 자신감에서인지 몰라도 벌써 정권교체가 마쳐 이루어진 것처럼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여당과의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보는지 한나라당 안에서 두 후보간의 공방이 불을 붙고 있다. 그들의 지나친 경쟁과 한나라당 내의 공천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들은 지난 번 보선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을 한 나머지 오히려 여당후보는 아닐지라도 오히려

“ 페르디난드 왕과 공정인들은 스스로 정한 서약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게 된다. 얼마 후 아름다운 불란서 공주와 여자 수행원들이 외교적 방편을 하게 되자 자신들의 서약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가슴속에 사랑의 불길의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신하들의 사랑의 행위를 범죄시하여 형벌에 처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소네트를 지어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자신들의 어색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에 빠져 그들의 진정한 본성의 욕구를 스스로 좌악시키는 잘못된 범한 것이다. ”

무소속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선거의 책임을 묻는 지도부 책임론과 퇴진론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며 강제성 대표를 압박하는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강 대표가 공정한 경선들을 만들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양 진영 사이의 불화는 내용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에서는 박 전대표의 검증론과 경부운하 프로젝트 구상이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네거티브 운동으로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이용해서 경선에서 국민참여비율을 좀 더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쪽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 쪽에서 자신의 결혼과 육아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교육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은 비방이나 음모에 가까운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불리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경부운하나 대륙간 철도건설 등 아직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계획들을 마치 대단한 뉴질정처럼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심각한 오류를 범해서 지난 번 IMF처럼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보편성이나 구체성이 결핍된 계획은 행정수도의 경우처럼 지역이주주의와 맞물리면서 국가 전체를 혼돈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사랑의 힘 수고』에서 정치인의 이상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페르디난드왕은 배론, 퉁거빌, 듀메인 등의 공정인들과 더불어 공정 학술연구원을 세워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시간의 한계를 파괴하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명예를 지키자는 대단히 허무맹랑한 제안을 강력하게 한다.

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년동안 금욕과 금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 이런 왕의 주장에 대해 퉁거빌은 “겨우 3년간의 금욕입니다. 육체는 여위더라도 정신은 향연에 즐기게 될 겁니다”라고 맞장구치고 나오며, 듀메인 조차도 “저는 죽은 것입니다. 퉁거빌과 함께 학문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아첨을 한다. 다만 배론만은 “누구나 욕정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론을 편다. 자신이 아무리 청교도적인 청순한 삶을 살고 싶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시켜 신하들이나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독선에 불과하다. 인간에게 적절한 정열이나 자양분 섭취는 삶의 원동력이 되며, 삶의 기쁨이기도 하다. 페르디난드 왕은 자신의 본성조차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금욕과 금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이상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자연적인 삶을 구속하고 좌악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형벌과 고문이 될 수 있다.

페르디난드 왕과 공정인들은 스스로 정한 서약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게 된다. 얼마 후 아름다운 불란서 공주와 여자 수행원들이 외교적 방편을 하게 되자 자신들의 서약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가슴속에 사랑의 불길의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신하들의 사랑의 행위를 범죄시하여 형벌에 처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소네트를 지어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자신들의 어색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에 빠져 그들의 진정한 본성의 욕구를 스스로 좌악시키는 잘못된 범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페르디난드 왕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표심이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헛 공약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이유 없는 죄인으로 만들거나 그들의 본성을 어긋나게 해서서는 안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발표된 혁신도시나 행정도시나 거창한 이름을 붙여 땅값을 치솟게 하고, 건전한 노력을 통한 자산 형성보다는 땅 투기를 통한 한탕주의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또한 땅값이 오르면 만큼 세금 폭탄으로 그들의 등을 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의 발언의 진실성은 그들의 허풍담이나 무의미하지만 철저히 검증작업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세이 37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7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인 듯 한데, 시간은 빨라 벌써 5월을 맞고 있습니다. 새삼스레 세월의 유수(流水)같은 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교사(敎師) 주변이 연둑빛으로 푸르러지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싱그러움으로 한껏 가득 차 오르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신록(新綠)의 계절인 5월은 청소년의 달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에 생명의 원천인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학생 여러분! 신록이 봄의 상징이듯 청소년기는 인생의 봄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의 보배요, 꿈이며, 이 나라의 희망이므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며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의 푸르름처럼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청소년의 달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 보면서 과연 자랑스러운, 윤희롭게 성장하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 시절은 가장 값진 황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람 있는 삶과 그

렇지 않은 삶이 이 시기의 노력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까.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들이 꿈꿨을 때 원대한 삶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소년기는 장래를 설계하는 준비기로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시기입니다. 준비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활동이요,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알차고 보람 있는 생활은 내일의 광영(光榮)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봄이 생명을 싹트는 계절이라면, 청소년기는 장차 삶의 터전을 닦는 시절로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잘 기우어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을 기약하는 시기이겠지요.

공자는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사상과 인격의 발달 과정을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서 “나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吾十有五而志于學)”고 하였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나아갈 바, 즉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Field medal)을 받은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세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람의 성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목표에 도달하는 자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목표가 사람을 끌어 당기는 힘이 되어 일을 하게 하고 발전·진보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도 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각하고 행동이 장래를 좌우하는 밑거름 구실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고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허무한 노년(老年)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준은 다시 돌아오지 않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예찬할 청소년의 꽃인 청소년 시절에 한 순간이라도 시간을 귀히 여기고 알차게 생활해야 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월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고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훌륭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들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생활하는 사람은 내일과 먼 훗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춘이란 끊임없는 도전이며, 이상의 열망입니다. 완성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훌륭한 인격을 쌓고 큰 뜻을 세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생활해 나갈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강 대표가 공정한 경선들을 만들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양 진영 사이의 불화는 내용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안전운행은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새마음 · 새출발로 안전운행을 약속하는 새 포천고속관광(주)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25인승 · 35인승 · 45인승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예약문의 031) 544-8888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